제44차 부산종친회 정기총회 개최

권성용 회장

부산종친회(회장 권성용權聖容)에서는 지난 6월 27일 18시, 부산 연산동 해암뷔페에서 제44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정기총회는 '코로나19'영향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 차원에서 고문, 자문위원, 부회장단 및 대의원 등 종친회 임원진과 산하 단체원만 참석한 가운데 단출하게 열렸다. 매년 500명 이상 참석하던 때와는 달리 150여 명이 모인 이날 총회는 정수 수석부회장의 개회 선언으로 시작하여 국민의례, 시조님께 망배, 덕산(영훈) 천등회장의 종시 낭독 순으로 진행되었다.

뒤이어 신임 부회장 네 분에 대한 위촉장과 함께 원광(영호) 전 종친회장, 옥순 전 부녀회장, 송근 전 개인택시회장 등에 대한 공로패를 전달한 뒤에 장학생 7인에 대한 장학 증서를 수여하였다.

송암(성용) 부산종친회장은 이어진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대재앙으로 반 년 가까이 불안과 불편 속에 고초를 겪은 종친을 위로하고,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반갑고, 감개무량하다고 인사한 뒤 정기총회에 참석한 원로 어르신과 임원·족친 및 단체에 감사를 표하였다.

성용 회장은 회장을 맡고 1년을 보내면서 종친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여러 어르신, 족친님의 한결같은 마음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족친들께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를 전한 다음, 부산종친회가 결성된 지 꼬박 43년이 흐르는 동안 역대 회장님들의 노고와 원로 족친님들 정성이 오늘의 종친회를 일구어 냈음을 회고하고, 평소 종사에 솔선하여 힘든 일, 궂은 일 마다않고 해온 부녀회, 청년회, 장년회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계속해서 성용 회장은 '코로나19'가 발목을 잡아 정기총회를 축소하게 된데 대하여 양해를 구하면서 "안동 권문은 빼어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자타가 인정하는 명가라는 자부심 덕분에 다른 성씨들보다 일족 간에 정도 많고, 결속도 잘 되는 편"임을 강조하고, 앞으로도 "일가끼리 더욱 친목과 우의를 돈독히 하고, 선조들께 부끄럽지 않은 후손이 되도록 서로 삼가고 애써 주기"를 당부하면서 본격적인 여름, 코로나와 무더위에 종친의 건강과 함께 가내 평안을 기원하였다.

격려사에 나선 영호 명예회장은 '코로나19'에도 성황을 이뤄준 족친님께 감사를 드리고, 지나간 종친회장 4년 동안 권문전국체전 개최 등 여러 일들을 회고하면서 지원과 협조에 대한 감사 인사와 더불어 지역종친회장 협의회 현황을 소개하고, 앞으로 각 단체별 조직의 힘을 극대화하고, 성용 회장을 도와서 더 크게 발전하는 종친회를 만들자고 역설하였다. 길상 고문도 격려사를 통하여 '손'과 '세손'이 같은 뜻이 아님을 주지시킨 후, 부산종친회의 탄탄한 조직력과 근황에 대한 소개와 함께 더욱 발전하는 부산종친회가 되도록 지혜를 모으고 뜻을 합하여 단체를 중심으로 더욱 화합하고, 일가간에 서로 정을 나누는 따뜻한 종친회가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계속된 정기총회는 임호 감사의 감사보고와 함께 제43차 결산 등 안건 심의를 마치고 부녀합창단과 함께 권문의 노래 제창에 이어 송운(재목) 고문의 만세 삼창으로 1부의 막을 내렸다.

한편 정기총회는 권해옥 대종회 회장과 권병관 광복회지회장의 축하 화환과 충렬 색소폰합주단의 식전 공연이 초반 분위기를 돋우고, 만찬 때는 태식 부회장의 사회로 초청 가수의 노래와 신청곡으로 흥겹게 진행되었으며 특히, 귀가 때는 길상 고문이 기증한 양말 200세트와 성용 회장이 마련한 타월 200매를 선물하여 더욱 훈훈하게 마무리되었다.

부산종친회 권채영 사무국장

인류사에는 정사와 야사와 가족사가 있습니다
가족사는 족보이고 한국은 족보의 첨단선진국입니다

추밀공파 양촌문충공계
창수공족보를 만듭니다

창수공은 양촌 문충공의 4남 안숙공의 손자로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감내에 산소가 계신
광흥창수 휘 억憶을 계파조로 하는 1만5천 자손입니다

이번 족보는 한글판한자병기 전산보로서
책자는 첨단출판체재로, 전산판은 인터넷으로 어디서나
열람되는 영상보로 병행제작됩니다

수단[수록단자]의 마감은 2020년 4월 30일이고
수단비[등록비]는 창수공종회에서 지원하여 무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족보발간사무실: (우)08756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95 천우빌딩 503호
지하철 2호선 봉천역 4번출구에서 150미터
팩스겸용전화 02-885-7776 e-mail kwon8857776@naver.com
간사 권병관 010-8869-2867 종보사 02)723-4480

안동권씨 창수공종회장 권병돈

권율 도원수 3대첩

贈 領議政·永嘉府院君·忠莊公·晩翠堂
증 영의정 영가부원군 충장공 만취당

성균관成均館 전의典儀 겸 전례사典禮師 권정택權貞澤

충장사

그리하여 곧 전열이 정비되고 총통(總統)에서는 연거푸 불을 토하였다. 위에 다수가 파편을 맞고 말에서 굴러떨어짐으로써 제4대의 공세도 무위로 돌아갔고 이어 길천광가(吉川廣家)의 제5대와 모리원강(毛利元康)·소조 천수 포의 제6대가 달려들었다. 그리고 육순 노장 융경이 제7대를 이끌고 와 아군 진영의 서북면을 공격하였다. 서북면 진영은 해남(海南) 대흥사(大興寺)에서 기병하여 지원군으로 합세한 승장(僧將) 처영(處英)의 승군이 지키고 있었다. 크게 함성을 지르며 적군이 돌격해 오자승 군들은 횟가루와 고춧가루를 뿌렸다. 그러나 적은 잠시 훑어졌을 뿐 다시 공격하여 승군 진영을 무너뜨렸다. 승군들이 내성으로 쫓겨 오는 것을 보고 공은 칼을 휘두르며 독전하였다. 이에 모든 장졸이 필사적인 육박전을 전개하는데, 적군 또한 노련한 소조천융경의 지휘로 총공세를 가하니 우열이 번갈아 뒤바뀌는 격전의 연속이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아군이 위태로운 지경에 빠졌는데 그것은 화살이 떨어졌기 때문이었다. 겨우 석포로 저항하는 형편인지라 그대로 시간이 경과 할수록 짙어 갈 것이 명약관화하였다. 이때 다행히도 경기수사(京畿水師) 이빈(李頻)이 배 두 척에 화살 수십만 개를 싣고 와서 전황은 다시 호전되었고, 시석이 어지럽게 쏟아지자 날이 저물 무렵에야 적은 득이 없음을 깨닫고 마침내 퇴각하기 시작하였다. 적은 퇴각하면서 네 곳에 시체를 쌓아 놓고 태웠는데 그 냄새가 10리 밖까지 진동하였거니와, 병갑(兵甲)을 거두어 사라진 뒤에도 행주에서 한성에 이르는 길이 적의 시체로 이어질 정도였다. 적의 사상자는 23,000여 명이 넘었다. 그뿐 아니라 장수 전야 장강은 흉부에 관통상을 입었고, 위에 다소가는 포탄 파편을 맞았으며, 질천 광가·석전·삼정도 중상을 입는 등 소위 역전의 명장들이 줄줄이 참담한 꼴로 무릎을 꿇었고, 아군에게 노획당한 조총·병마 등 중요 전리품만도 727점에 이르렀으니, 적은 거의 섬멸되어 군세가 말할 수 없이 궁핍해졌다. 실로 큰 걱정이었으며 또 통쾌한 승첩이었다. 이것이 유명한 행주대첩(幸州大捷)이다. 선조는 행재소에서 승첩의 보고를 듣고 공에게 자헌대부를 가자(加資)하고, 공이 있는 장졸에게 두루 상과 벼슬을 내렸다. 이 무렵 이여송(李如松)은 개성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선봉 사대수(査大數)가 승첩의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 전장을 시찰하고, 며칠 뒤에 공을 청하여 만나서는 "권 장군의 진법은 다른 장군들과는 유별나게 다르다. 외국에 이러한 참다운 장수가 있었구나"하고 감탄하였다.

또한, 명나라의 경락(經絡) 송응창은 본국에서 자문을 보내어, "왜적이 조선을 쳐부수고 함락시키기에 조선에 충성스러운 인물이 없는 줄 알았다. 그런데 홀로 권율만은 고립된 성을 굳게 지켜서 많은 군사를 불러 모아 자주 기묘한 괘를 내고 때로는 큰 부대의 적에 대항하였다. 근래에는 다시 부대에 모래를 넣어 군량(軍糧)을 위장하여 왜적이 와서 약탈하도록 유인해 습격하여 죽였다. 이 사람이야말로 나라가 어지러울 때 비로소 알아볼 수 있는 충신이요. 중흥의 명장이라 하겠다. 그러나 붉은 비단 네 필과 백은(白銀) 50량을 상으로 베풀어 보충하여 사용을 권장했으면 한다."라고 하였다. 명나라 조종의 문무관들은 공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그이가 전에 행주에서 승첩한 이로군." 하고 말하였으며 왜적의 추장(酋長)도 반드시 공의 동정을 알아두었다고 한다. 그리고 명나라의 병부상서(兵部上書) 석성(石星)은 조선 사신에게, "그때 나라의 모든 신하 가운데 만약 권율과 같은 인물이 두 명만 있었다면 내가 무엇을 근심하겠는가."라고 하였다.

[백사집白沙集]에 의하면 공은 오히려 이치령(梨峙嶺)의 승첩을 더 중요하게 여겨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세상에서 행주 전투에서 공이 있다고 하지만, 실상은 이치령의 싸움이 제일 중요한 것이었고 그 다음이 행주라 하겠다. 이치령에서는 전투의 시초부터 적의 기세가 한창 드높지만 우리 군사는 외롭고 약할 뿐 아니라, 또 건장한 군사도 없어 기 때문에 군중이 흉흉하여 이긴다고 믿기 어려웠다. 다만 능히 있는 힘을 다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싸웠으므로 일천 명도 안 되는 군사를 가지고 10배나 되는 적병을 물리쳤고, 마침내 호남을 보전하여 나라의 근본이 대개 무사하였으니 이것이 어려웠다고 하는 까닭이다. 그러나 이때는 서도(西道)가 막혀 끊어지고 본도가 무너져 이상하여서 내가 비록 공이 있어도 드러내어 칭찬하는 이가 없었다. 행주 전투는 이치령에서 공을 세운 뒤에 벌어 젖고, 권력과 직위가 이미 무너져 군사들을 장악할 수 있었던 되다가 호남의 정맹(訂盟)한 장졸들이 모두 나의 수하에 들어왔을 뿐 아니라, 군사의 수효도 수천을 헤아렸고 지리(地理) 또한 험해서 이로운 바가 많았다. 그래서 적병의 수가 비록 몇 배나 되지만 그 기세가 이미 쇠약하여 공을 세우기 쉬웠으며 바로 명군(明君)이 위압에 있고 각도의 근왕병들이 경기도 안에 바둑놀이처럼 깔려있었으나 행주 전투의 승첩이 때마침 모든 군진보다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 공이 쉽게 드러났다."

행주대첩 후, 적은 패배를 만회할 기회를 엿보고자 때때로 밀정(密偵)을 보내어 아군의 동태를 염탐하였다. 하루는 공이 인천 객과 함께 전장에서 병사를 논하고 있을 때 한 병사가 두 개의 궤를 가지고 왔다. 강물에 떠 있는 것을 수비병이 헤엄 쳐 들어가 주워왔다는 것이다. 공은 그것을 열어 보라고 명하였다. 그 속에는 금백진화(金帛珍貨)가 가득 했는데 모두 왜물(倭物)이었다.

"이는 반드시 적의 물건으로 우리를 유혹하려는 간계다."

공은 이렇게 말하고 장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인천 객이 공에게 이르되, "다음에 또 이와 같은 물건이 반드시 떠내려올 것입니다. 미리 명령을 내려 다음번의 궤는 절대로 열어 보지 말고 조심스레 묶어서 가져오라고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과연 며칠이 지나자 군리(軍吏)가 두 개의 큰 궤를 가져왔다. 겉보기에 홍칠과 금색이 찬란하여 눈이 부실 정도였다. 인천 객이 즉시 두 궤를 철책(鐵柵)으로써 결박시킨 다음 높이 쌓인 장작 위에 올려놓고 불을 질렀다. 궤는 타서 재가 되고 두 개의 해골과 두 개의 보도(寶刀)가 나왔다. 공은 궤 속의 두 명의 자객이 들어 있었음을 알았고 이는 필시 공을 해치려는 적의 관객이었으므로 인천 객의 선견지명에 더욱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 다행히 진궁(秦宮; 진나라의 궁궐)의 침수(소매에 비수를 숨기고 들어온 자객)를 면하였으니 마땅히 양객(梁客; 양상군자의 이칭으로 들보 위의 도적)의 후환을 경계해야 합니다."

인천 객이 말 한 지 얼마 안 되어 영문(營門) 밖 하늘에서 흰 무지개가 한 가닥 다가오는 것이었다.

"지기 검객(劍客)이 오고 있습니다. 어서 협실(夾室)로 피하십시오. 제가 마땅히 화를 물리치겠습니다."

인천 객은 공께 급히 고하고 나서 벽에 걸려있던 쌍검을 뽑아 들고 원수의 자리에 앉았다. 과연 흰 무지개는 장중(帳中)으로 다가들었고, 인천 객은 칼을 휘둘러 출영하였다. 공중에서 칼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하고, 쟁쟁(爭爭)한 바람이 휘몰아쳤다. 공은 잠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가 협실 문을 걷어차는 소리에 눈을 번쩍 떴다 문을 차는 발을 보니 인천 객이었다. 빨리 다른 곳으로 피하라는 신호임을 알아차리고 공은 후문으로 빠져나가 밖에서 빗장을 질렀다. 조금 후에 인천 객이 협실에서 나와 미인(美人)의 머리를 내보이더니 땅에 내동댕이쳤다. 공은 사태를 알고 인천 객을 친사하면서, "어찌 내 방에 있다가 다시 협실로 옮겼는고."하고 물었다.

이 미녀가 해상공활(海上空豁)한 곳에서 검을 배우고 있기에 그 실력을 발휘할 수 없도록 협착한 곳으로 끌어 들려 체포할 생각이었습니다. 만일 문에 빗장을 지르지 않았더라면 반드시 빠져나가 원방(遠方)으로 달아났을 것입니다. 오늘 일은 빗장을 지른 것으로 성공하였으니 진실로 공께서는 원수가 될 만한 분이십니다."공은 이로부터 더욱 인천 객을 경중(敬重)히 여겨서 잠시라도 곁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공은 진을 파주산성(坡州山城)으로 옮겨 명나라 군사와 함께 임진 이남을 수비하게 되었다. 이미 공의 전공은 내외에 알려졌거니와, 특히 이여송은 벽제관(碧蹄館) 패전 후 평양으로 너무 서둘러 회군했음을 후회하였다고 한다. 어느 날 인천 객이 공에게 말하기를 "행주 대첩이 중흥의 원공(原功)이 되어서, 소문이 대국의 천자에게 알려졌고 천하의 명성을 떨치게 되니 마땅히 죽백(竹帛)이 남을 것입니다. 이제 다시 무엇을 구하리오. 전열이나 가다듬고 진영이나 굳게 정비할 따름입니다. 다시 접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국의 화의가 성립되면 적은 자퇴하여 돌아갈 것입니다. 저는 가권(家券)을 오래 보지 못하였고 또한 안부조차 듣지 못하였으므로 심사가 어려우니 떠나야 하겠습니다"하였다. 공은 극진히 만류하였다. 그러나 인천 객은 금박의 많은 선물도 마다하고 절름발이 나귀를 끌고 표연히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한편 명나라 측은 심유경(沈惟敬) 한성의 왜진에 보내어 화의를 추진하였고, 전의를 잃은 왜군은 화의에 응하여 그해 4월 한강을 건너 충청도로 내려갔다. 이때 공은 파주로부터 한성에 들어와 왜군을 추격하려 하였으나, 이여송이 유격장군(遊擊將軍) 척금(戚金)을 시켜 한강에 나룻배를 모두 거두게 하였으므로 뜯을 이루지 못하였다. 남쪽으로 내려간 왜적은 울산(蔚山) 서생포에서 우천(웅천; 현 창원에 이르는 지역에 성을 쌓고 화의를 기다렸다. 공은 전라 병사 선거이 등과 더불어 전라도로 돌아왔다. 이때 도원수 김 명원과 순변사 이 빈이 각도의 장졸을 거느리고 적을 추격하게 되어, 공은 새 군사를 이끌고 운봉을 넘어 창녕(昌寧)의 들어가 진을 쳤다. 관군과 의병이 모두 모여 공이 거름 강을 건너 전진하려고 하자 곽재우(郭再祐)·고언백(高彦伯)이 가로되, "지금 적의 기세가 한창 치성(熾盛)한 반면에 우리는 오합지중(烏合之衆)이 많을뿐더러 앞길에 군량도 두지 않았으니 섣불리 전진할 수 없소"라고 하였다.

공이 망설이고 있는데 순변사의 종사관(從事官) 송호선(宋好善)이 제장(諸將)들의 지체함을 나무랐다. 그래서 공은 거름강을 건너 함안성(咸安城)으로 들어갔다. 진영을 차리기는 하였지만, 성안이 텅 비고 먹을 것이 없어 군사들이 풋감으로 배를 채워야 하는 형편이었다.

〈참고자료: 조선왕조실록, 백사집, 국조인물과 은봉야사, 금산군지, 대동야승, 열려실기술, 동야휴집, 대동기문, 상촌집〉